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제1775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5월 19일 (음력 4월 3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9(土)	20(日)
구름조금 12 / 22℃	맑음 11 / 25℃

News

• 盧대통령 경제인 간담회 ②
• 오늘 잉글랜드 FA컵 결승 ⑱

Jeollado

• 그 사람-아산 조방원 선생 ⑦

Entertainment

• 드라마 주인공 직업 화제 ⑧
• 젊은 배우들의 '질주' ⑨

Wellbeing

• 식품 탐구-오리 ⑬

Trend & Style

• 화장하는 남자가 아름답다 ⑭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홍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담홍보실 1588-5051 ▶T.(061) 360-5000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5·18 민주화운동 제27주년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 등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盧대통령 "지역주의 살아있다"

어제 5·18 민주화 운동 27주년 기념식

서울·부산·인천·대전 등서도 추모행사

제2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노무현 대통령 내외를 비롯, 각 정당 대표 및 정부 관계자, 유가족, 관련단체 회원, 시민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관련기사 2·3·4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헌화·분향에 이어 정수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의 경과보고, 안숙선 명창과 광주·대구 시립합창단의 기념공연, 노 대통령의 기념사, 기념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열린 5번의 5·18 기념식에 모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아직도 지역주의가 살아있다"면서 "지역주의는 어느 지역 국민에게도 이롭지 않으며, 오로지 일부 정치인들에게만 이로울 뿐"이라며 지역주의 경계와 심판을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제게 더 남은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헤아림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며 국민들에게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요즈음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망한 노릇"이라며 "민주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모든 면에서 87년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역사의 진보를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묘역 안에 개관한 5·18 추모관에 들러 전시물을 관람했으며, 기념식 뒤에는 박경순 5·18 묘지관리소장의 안내를 받아 묘역 곳곳을 둘러봤다. 이날 기념식에는 주요 정당 지도부와 함께, 대선 주자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 한명숙 전 총리, 민생정치모임 소속 천정배 의원,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내 각 시·군과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지역에서도 이날 5·18 기념식 등 추모행사가 열려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한편 5·18 묘지를 비롯, 광주지역 곳곳에서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오후에는 5·18 묘지에서 원불교 광주·전남대교구 주관으로 추모제가 열렸으며, 시내 한빛교회와 원각사에서는 추모예배와 추모법회가 열려 5월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또 광주·전남 대학생이 5·18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의미를 올곧게 계승하자는 '대학생 오월 한마당'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5·18기념문화관에서는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지난 17일부터 전남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학술대회도 이어졌다.

한편 한미 FTA반대 광주·전남운동본부와 광주·전남 농축산 FTA 비상대책위, 민주노총 소속 회원 200여명은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망월동 옛 5·18 묘역에서 FTA 반대 집회를 갖고 노 대통령과 대선 주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등산 軍기지 이전 盧대통령 발표할까

어제 광주서 1박 이례적

정국구상 밝힐 가능성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탈지역주의를 통한 민주세력 대통합을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18일 기념식 이후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 및 참여정부 전·현직 정무직 인사들과 만찬을 갖고, 19일 오전에도 지인들과의 산행을 통해 정국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에 이틀 동안이나 머무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일단 지역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18일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광주 민심이 범여권 대통합 과정에서 다신 한번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게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호남과 충청 연합,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통합 등은 지역주의 부활은 물론 정치 문화를 한 걸음 후퇴시킬 수 있다며 지역주의 극복을 바탕으로 한 민주세력 대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일 지인들과 함께 하는 산행에서는 무등산 미사일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미사일기지 이전을 발표할 경우 도립공원인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기지는 무등산 정상에 위치해 있어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광주 지역사회의 이전 요구가 빗발쳤었다.

여기에 전남의 현안 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 사업(J프로젝트)및 서남권 개발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광주·전남 출신 전직 참여정부 정무직 인사들과 친노 인사들을 만난다는 점에서 사실상 열린우리당 분당에 대비한 행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보리수매가 첫 인하 방침

59년만에…작년보다 2~4% 내리기로

전남농가 타격 클듯

보리수매가가 정부수립 이후 59년만에 인하되고 농가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도 하향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주곡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가뜩이나 위축된 전남지역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농림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동결된 보리수매가를 올해부터 지난해보다 2~4% 인하키로 잠정 결정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매물량도 연간 5~10%씩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수매가가 인하되면 올해 전국 보리재배 약정물량 17만 1천t 가운데 57%에 이르는 9만 8천t을 생산해 900억원(쌀보리 40kg 2등 3만 4천원 기준)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지역 3만 2천여 보리재배 농가 수입은 20억여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감소 등으로 보리 생산을 줄이기 위해 수매가를 내리기로 하고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농림부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은 모두 올해 보리 수매가를 내리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무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수매가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전국 보리 재고량은 농협수매물량을 포함해 24만여t에 이른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